

표지사진 : 이등춘 작가

안동 광산김씨 종택의 별채 후조당



CONTENTS Vol. 97 · 여름 | 2026

- | | | | |
|----|--|----|--|
| 02 | 청운동 사계 하수경
춤추다 dance | 18 | 다녀왔습니다 이현숙
봄 사찰순례 수도암
화려함도 초라함도 없이, 나도 저러했으면 |
| 03 | 발행인 편지 정대련
사월과 오뉴월 사이 우바이들은 | 20 |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어순아
몸을 담은 모든 곳이 수행처요
새벽예불하는 내집이 기도도량 |
| 04 | 나누면 행복해요 전영숙
18번째, 해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더욱 특별했던 '복을 부르는 행복 바자' | 22 | 만나고 싶은 스님 김영희
비구니 최초의 여산어장 동희 스님
범패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수행 |
| 08 | 함께 해 즐거웠어요 · 여성불자 108인 워크숍 손은정
보석 같은 인연으로 진정한 우바이가 된 날
'진심 어린 새내기 환영 감사합니다' | 26 | 불교와 문화 윤효진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남긴 질문
힘한 불교에서 열린 불교로 |
| 11 | 지금 여기 우바이 최연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수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보는 일 | 28 | 불교와 여성 조민기
칠석날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
남녀 인연부터 입시 기도까지 |
| 14 | 부처님오신날 이예지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 '연등회'
인종과 세대를 이은 수만 개의 불빛 | 30 | 개발원 소식 |
| 16 | 부처님오신날 이지윤
창립 30주년, 뉴욕 불광선원 봉축대법회
언어와 문화를 지켜가는 부처의 아이들 | 34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 | 36 | 회원동정 |
| | | 38 | 재정 동참 현황 |
| | | 40 | 2026년 하반기 계획 |

우바이예찬

2026년 통권 97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편집위원장 남혜경 편집위원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최연지, 이지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춤추다 dance

그림·글 / 이수경_1차 108인

나는 한동안 '춤추다 dance'라는 제목의 작품을 연속해서 발표했다.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춤춘다. 그것은 파동의 상태.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신체 동작뿐 아니라 사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것을 통틀어 dance라고 이름 붙였다. 이 그림은 작업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붓을 휘두른 필치로 보아 신이 났던 것은 틀림없다. 흰색은 매우 두텁고 빠르게 칠해져 빛의 파편이나 반사되는 순간의 폭발하는 에너지 같고 압도적이다. 캔버스에 흰색을 칠했을 때의 속도와 힘이 느껴진다. 짙은 청록색과 붉은색은 신체의 동작을 암시하고 깊은 감정의 파동이 배어 있다. 숨겨둔 정열 같은 순간적인 에너지가 시간 속에서 정지된 듯하다.

사월과 오뉴월 사이 우바이들은


불기 2570년 음력 사월 초파일,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들은 관불의식 올리는 동서남북 크고 작은 법당, 세계문화유산 연등회가 이어지는 넓고 좁은 길목, 어린 친구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교정교화 법당,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딸이 모이는 군법당을 찾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 되어 서원하였습니다.

오월 서른 날, 청운동 불교여성광장 자비실에서는 혜충대종사를 계사(戒師)로 모시고 가족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삼보 전에 지심참회하며 연비하고, 오계율법을 경청 수지하며, 법명 받아 불제자로 거듭나, 자유롭고 자비로운 생명 실상을 깨달아 함께 생사 해탈하기를 발원하였습니다.

유월 열여드레 여성불자 108인은 경남 산청 선림사에서 불교여성개발원 금강경독송기도 1200일(수행기도 1500일)을 회향하고, 또 한 번 백일기도 입재하며, 수행하는 삶을 다듬었습니다. 간화선과 차명상, 침선명상, 미술명상, 춤명상, 요가명상, 만다라명상, 염불명상 ... 불법에 다가가는 108인의 수행은 머무르는 모습대로 깊어만 갑니다. 강릉 설악에서, 대구 경북에서, 부산 경남에서 부처님을 향한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초고령화 사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을 언제나 젊은 우바이들의 열정으로 가득 채웁니다. 1차 108인부터 12차 108인까지 뛰어난 전문역량을 갖춘 지혜로운 여성들은 워크숍, 바자,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의 전문역량을 열어 진지하게 또 정답게 공유하고 탐구하며, 사회적 봉사과 실천을 위해서로 소통하고 함께 창조적 삶을 나눕니다. 전통문화를 잇고 미래 첨단기술을 지향하며 나날이 새로운 삶을 교류하는 불교여성광장은 우리나라 재가여성 불자들의 참다운 부처님 세상입니다.

어느새 여름 장마비를 만납니다. 하늘을 보며 폭염과 폭우의 징후를 읽어봅니다. 인왕산 푸른 숲을 만날 수 있는 청운동 불교여성광장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_000_ 

18번째, 해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더욱 특별했던 ‘복을 부르는 행복 바자’

올해로 18회를 맞은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의 바자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최하고 여성불자 108인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제 개발원을 대표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108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물품을 모으고, 판매하고, 후원하며 만들어가는 이 바자는 단순한 장터가 아니다. 나눔과 수행,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도량이다.

올해 바자회의 이름은 특별했다

이영주 108인회 회장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스스로 공덕을 쌓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이름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금강경』의 첫 장면이 떠오른다. 부처님은 아침이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 차례차례 집집마다 탁발을 하신다. 특별히 부잣집만 찾아가지도 않고, 권세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지도 않는다. 누구에게 식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지도 않는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자립의 정신이다. 부처님은 교단의 스승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몸소 보여 주셨



다. 둘째는 평등의 정신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간다. 셋째는 공덕의 기회를 나누는 정신이다. 보시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으면 공덕을 쌓을 수 없다. 부처님은 집집마다 찾아가 모든 이에게 선행의 기회를 열어 주셨다. 넷째는 상호 의존의 정신이다.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관계이다.

서로가 공덕을 주고 받는다

생각해 보면 여성불자 108인회의 바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물건을 기증하고,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판매를 돕고, 누군가는 구매에 동참한다. 또 누군가는 홍보를 맡고, 누군가는 후원금을 보탠다. 각자의 힘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원력을 이루어 낸다.

보통 기부라고 하면 몇몇 사람이 큰돈을 내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자는 다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물건을 내놓은 사람도 감사하고, 구매한 사람도 감사하고, 판매를 맡은 사람도 감사하다. 서로가 서로의 공덕을 돕는 관계가 형성된다.

여기에 환경과 나눔의 가치도 더해진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버려질 뻔한 물건이 다시 쓰인다. 소비를 넘어 순환과 나눔의 의미가 살아난다.

열정적인 막내와 노련한 선배, 모두가 한마음

올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 바자를 확대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과감하게 하루로 줄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각 차수에서는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차수장과 부차수장, 총무와 재무가 힘을 모아 준비에 나섰다.

특히 가장 후배 기수인 11차와 12차 회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11차 이현숙 차수장은 “무주상보시를 마음에 새기며 참여했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相)’을 바라보게 되는 수행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바자는 11차 회원들과 임원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처음 바자에 참여한 12차 회원들은 또 다른 감동을 이야기했다. “바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다”는 차수장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바자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하루로 압축된 오프라인 행사장의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판매 시작 전부터 회원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붙이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곳곳에서 “이 물건 정말 좋다”, “하나 더 사야겠다”, “오늘은 꼭 완판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구매자들은 물건을 고르며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3층에서는 민화와 불화 전시가 함께 열려 바자회에 또 다른 의미를 더했다.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를 넘어 예술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것이다.



이번 바자에는 곳곳에서 따뜻한 정성이 이어졌다. 강원지원에서는 판매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메밀전 45세트를 보내 주었다. 9차 한정화 회원은 새벽부터 찰밥을 지어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온 뒤 다시 다마스로 물품을 옮기는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올해 창립한 대경지원에서도 훈훈한 기부금을 보내 왔으며, 이정숙 대경지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다문화’ 팀에서도 캐슈넛 판매와 기부금으로 정성을 보탰다. 영월에서는 성휴 스님이 직접 바자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 주셨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바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선배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김인숙 초대원장은 1·2·3차를 위해 주름옷을 대량 기증하고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했다. 또한 모든 차수에 해물전 두 장식을 사주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인숙·정경연·김선옥·김애주 역대 원장과 양경윤·남동현·이영미 역대 회장들은 각 차수 매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골고루 물품을 구매했다. 이기향 전 원장과 김외숙 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부금을 보내며 마음으로 함께했다. 또한 10차 108인 산청 선림사 보우 법사님은 4차를 위해 된장 100통을 보시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정대련 원장은 이번 바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 단체는 청운동 불교여성광장의 주춧돌 하나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의 기부와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자행사를 통해 나눔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귀한 마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원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숫자로만 보면 평범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바자의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다. 한 회원은 가족이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자에서 구입한 음식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넘어 누군가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식탁에 작은 행복을 선물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바자가 만들어 내는 진정한 가치인지도 모른다. 수익금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 주고, 정성과 마음이 전해지며,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 말이다.

지혜장학금을 마련하고 여성광장 건립 채무를 상환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덕을 짓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

‘복을 부르는 행복 바자’라는 이름은 어쩌면 단순한 행사명이 아니다. 복은 어디선가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임을,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이름이다. 🌸

‘끼리끼리’라서 더욱 즐거워요

- 1·2·3차는 정진희님의 연꽃 작품과 김인숙 고문님이 공수해 오신 주름옷을 양대 주력으로, 거기에 김진 선생님 지인 미술가의 쪽염 먼손수건과 이정호님의 손수 제작 액세서리까지 더해 꽤 그럴듯한 판매대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최혜경 이사님의 생강청 부침개가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팔려나갔다. 결과는? 전 상품 완판. _1·2·3차 차수장 조은수



● 4차 핵심 봉사자는 두 사람뿐이지만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 이번 바자 자신 감 뽐뽐입니다. 도움 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_4차 차수장 황외숙



● 바자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 뒷풀이에 만난 봉사자 전원과 다 녀간 5차 회원들! 다음 바자를 기약하며... 복을 나누는 바자회! 하심을 행으로 나투는 바자회! _5차 차수장 양경운

● 모든 것에, 열정 가득한 6차입니다. 시키면 뭐든 합니다. 물건 판매는 물론 이거니와 노래와 춤도 단연 6차이지요. _6차 차수장 강영자



●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밤낮없이 바자를 챙기는 이영주 회장을 도와 최선을 다했어요. _7차 차수장 안애원

● 소수 봉사자로 팔팔하게 판매중인 8차 108인회! _8차 차수장 이영희



● 강원도 영월, 대구, 양평에서 아이템을 모아 목표를 달성. _9차 차수장 윤정로

● 진열매대가 백화점인 듯, 즐겁고 신나게! _10차 차수장 고은자



● 어차피 해야 할 바자! 4월 워크숍 끝나자마자 우리 집에 뭐 있나? 뒤져 온라인으로 목표 달성하고 오프라인은 친목과 화합의 장. _11차 차수장 이현숙

● 바자 첫 도전 치고는 선방했어요. 힘들고, 속상하고... 끝나고 보니 행복한 바자였어요. _12차 차수장 박현주



‘진심 어린 새내기 환영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인연으로 진정한 우바이가 된 날

내가 일하는 건축설계 분야는 야근과 마감 전 철야가 일상이다. 늘 일에 쫓기다 보니, 작년 11월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식 이후로는 개발원의 공식 일정에 좀처럼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2차 박현주 차수장의 정성 어린 독려 전화를 받았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끌려, 이번만큼은 만사를 제쳐두고 일정을 비워두었다.

워크숍 당일인 4월 18일 토요일 아침, 조계사로 향하는 길에 전날 우편으로 받은 『우바이예찬』 복호를 가방에 쪽 넣었다. 소풍을 떠나듯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설렘다. 조계사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책장을 펼쳤다. 할머니하고 인도여행이 소원이라고 말한, 손녀와 꼭 잡은 손에서 삶의 의미와 뜨거움을 느꼈다고 고백하신 2차 108인 이란 선생님의 시가 가슴을 촉촉이 적셔왔다.

보리산 자락에 가피 깊은 인연으로 모여

조계사에 일찍 도착한 덕분에 사무국 선생님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나를 수 있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12차 유현숙 선생님과과는 현미식초와 같은 몸에 좋은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갔는데, 처음 만난 사이라



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편안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오랜 숙연(宿緣)일까.

싱그러운 봄 햇살을 받으며 도착한 가평 청리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아늑한 건물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마당의 벽수(장승)와 자유롭게 뛰어오는 강아지들이 우리를 반겼고, 찬란한 햇빛 아래 흐드러진 벚꽃과 진달래가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워크숍은 고 노숙령 고문님을 위한 추모 묵념과 위즈덤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정대련 원장님께서 한 편의 시와 같은 인사말을 향기롭게 읊어주셨다.

“춘사월 열여드레, 흐드러진 벚꽃 꽃비 되어 날리고 연못 속 꽃눈 되어 켜켜이 쌓이더니 투둑투둑 벙그는 백목련, 자목련 지고 연보라 라일락, 산도화, 철쭉 붉게 풍성한 경기도 가평 보리산 자락에 부처님 가피 깊은 인연들이 모였습니다~”

원장님은 2000년 11월 27일 창립 이래 ‘남녀는 불법 안에서 평등한 수행의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걸어온 개발원의 역사를 짚어 주었다. 특히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위해 기금을 모아준 분들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바자회를 통해 정성을 보탠 이들이 기금 마련에 큰 몫을 차지했음을 설명해 주었다.

‘비전 2035’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 이어져

이어 여성불자 108인회 이영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회장님은 10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 2035’를 주제로 제시하였다. 10년 후에는 200명 이상의 불자회원이 108인 선정식에 함께할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하며 그러기 위해 조직력을 키우고, 어떻게 자립력을 키울지 비전 2035를 주제로 차수별 토론을 당부하였다. “팔만대장경의 글자를 모두 합치면 단 한 글자, 마음 심(心)자가 된다”라며, 오늘 워크숍이 한마음으로 10년의 씨앗을 심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지혜롭게 동행하고 자비롭게 실천하는 108인회가 12차와 함께 앞으로도 세상의 빛이 되어주길 발원해 주었다.

이에 화답하여 12차 박현주 차수장은 역대 원장님들, 선배 불자님들, 사무국 선생님이 이뤄놓은 뜻깊은 발자취와 역사를 바탕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했고, 지리산에서 20년 이상 된장, 고추장, 식초, 현미 식초 등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오다 불교여성개발원에 동참하게 된 건강밥상지킴센터의 유현숙 센터장님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조직과 센터 소개를 통해서도 불교여성연구소부터 우바이예찬, 명상리더십, 영 108, 웰다잉 운동본부 등 14개 산하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보며 개발원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점심으로는 청리움에서 직접 만든 막걸리를 곁들인 불고기 버섯전골을 즐겼다. 그 자리에서 지난 108인 12차 선정식에서 첫인사를 하게 된 소프라노 강혜명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강선생님의 축하공연에 반했었

고, 비슷한 시기에 파리에서 유학을 했다는 공통점 덕분에 두 번째 만남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가웠다. 식사 후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잔디마당에 모여 앉아 진행된 12차 불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은 한분 한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사연을 알아가며 한층 더 친근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뜻한 마음과 재치로 웃음바다 만든 개성 발표

오후의 하이라이트는 방송인 김미화씨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펼쳐진 '차수별 개성 발표'였다. 우리 12차수는 강혜명 선생님이 가곡 '첫사랑'을 불러주셨는데, 아름다운 노래말과 선율이 무대 뒷 유리를 통해 비춰진 봄날의 정취와 잘 어우러졌다. 이어진 선배 차수들의 장기 발표 역시 재미있었다. 꽃같은 서방님을 주제로 시를 읊조린 4차 선배 불자님, 건강체조를 주제로 다 함께 율동 참여를 이끈 선배 불자님, 고운 한복을 입고 우아한 춤선을 선보이신 7차수 선배 불자님, 거꾸로 노래방으로 우리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어주신 선배 불자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지막 순서인 '비전 2035' 토론 발표에서는 선배들의 개발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혜안을 엿볼 수 있었다. 불교여성광장(청운동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20억 원이라는 기적적인 동참을 끌어냈던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정 자립 방안, 정부 지원 공모사업 참여, 그리고 MZ세대와 청년 불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마음돌봄 콘텐츠 신설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띤 아이디어들을 각 차수장께서 발표했다.



사회를 맡은 전영숙 8차 차수장,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아낸 이지운 편집위원, 행사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한 조정숙 국장과 사무국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과 108인 회장님, 각 차수장까지 수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이 거대한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았다.



12차 새내기인 나는 워크숍을 통해 불교여성개발원의 설립 취지와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많은 불자 선배 속에서 귀한 '실표'를 선물받았다.

특히 버스 안에서 읽은 2차수 이란 선생님의 시에 감동했다는 나의 후기를 전해 들으신 선생님께서 당신 손목에 있던 귀한 염주를 내 손목에 직접 채워주셨을 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내 손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그 염주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운 여성 불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된다.

재가 여성 불자 선배들이 보여준 자비의 실천과 봉사의 삶, 그리고 불교여성개발원의 10년 뒤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 나에게 이번 워크숍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보석 같은 인연을 시작하게 해준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다. 🍎

가족이라는 이름의 수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보는 일

‘불교’와 ‘여성’, 그리고 ‘가족’.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부모로, 누군가는 배우자로, 또 누군가는 자녀나 조부모로 살아갑니다. 여성의 삶과 가족의 이야기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 또한 관계를 떠난 수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공감, 이해와 배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얻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지혜로운여성 산하 가족지원센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2014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나눔·교육·수행 프로그램을 실천해 온 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살피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4행시 한마당/법향을 피우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가족 4행시 한마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법향가족’, ‘백팔가족’, ‘자비가정’, ‘동행수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성인부와 학생부를 합쳐 모두 31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4글자, 한 단어는 도(道)를 구하는 길로 성삼(誠心)을 다해 울림을 주는 사행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은자 센터장이 지방의 한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 4행시 공모전을 보고 착안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손편지 쓰기를 통해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가족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 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작품들은 가족에 대한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성민선 님의 「동행수행」은 투병 중인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수행으로 풀어내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행여 지칠세라 힘내라 위로하고 자비의 손길 내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구절에서는 병고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대상 수상작 - 성민선 / 동행수행

동: 동반자며 내 인생의 스승인 남편이 투병 중입니다.

행: 행여 지칠세라 힘내라 위로하고 자비의 손길 내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 슬한 번뇌, 내려놓고 법계에 가득한 불보살님들께 우리의 삶 내맡기니

행: 행복이 어느새 마음 고요 그 길로 우리와 동행하네

학생부 최우수상을 받은 박진현 학생은 “가족이 아닐지라도 서로 정답게 살아가리라”라는 문장으로 자비의

의미를 맑고 따뜻하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에서는 새벽마다 함께 절을 올리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는 메시지가 작품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학생부 최우수상 - 박진현 / 자비가정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비: 비록
가: 가족이 아닐지라도 서로
정: 정답게 살아가리라

고은자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네 가지 주제에 모두 응모한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홍보물을 챙겨가며 남편과 자녀에게도 참여를 권하겠다고 나선 회원도 있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담아낸 작품들은 모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불교가 결코 멀리 있는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짧은 네 줄의 글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감사와 배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법문이 아니어도, 일상 속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만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4행시 대회가 보여주었습니다.

한부모가족모임 ‘좋은벗’/혼자가 아니예요

가족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인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좋은벗’에서도 비슷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벗은 한부모들이 서로의 도반이 되어 주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2가정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월 1회 모임을 중심으로 문화체험과 가족 나들이, 부모 교육, 봉사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50~60대이며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사별 등 저마다의 사연은 다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외로움과 부담은 비슷합니다.

좋은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들으며 위로받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기계발과 종교활동을 통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분들이 모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벗은 도움을 주고받는 모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손자녀 돌봄 프로그램 등 시대에 맞는 사업 마련

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행복가족센터와 연계한 비대면 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은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이며, 상담 내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나 진로 문제 등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대부분입니다.

비대면 상담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상담을 원하기보다 부모의 권유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몇 차례 상담 후 연락이 끊어지는 사례도 있어 꾸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상담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지원센터가 꾸준히 상담사업을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손자녀 돌봄 프로그램 역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양육 기술과 자기돌봄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종로구가족센터와 연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모집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소통과 공감, 손자녀 이해하기, 쉼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조부모들이 건강하게 양육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면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부부템플스테이는 올해 아쉽게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지만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많은 부부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족지원센터는 교정교화센터와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등 여러 사업과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후원과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담과 교육 분야에서도 연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은 끝나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함께 손을 잡을 때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사회도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가족이 있고,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돌보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좋은벗이 되어 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자비와 공감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불교여성개발원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 가고 있는 작지만 깊은 수행의 모습일 것입니다. 🌸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 '연등회'

인종과 세대를 이은 수만 개의 불빛

신록이 날로 푸르러지던 5월의 셋째 주말, 유난히 맑고 따스한 햇살이 서울 도심에 가득 채웠다. 평소라면 학원 가방을 메고 분주하게 움직였을 아이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채 서울의 중심 종로를 찾았다.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2026 연등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3년 전부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참가해 온 축제였지만 올해는 감회가 달랐다. 9살이 된 아이들이 살아 숨 쉬는 우리 문화의 깊이와 따뜻한 화합의 현장을 직접 보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의 한복판에 서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종로의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수많은 자동차로 가득 차 매연과 소음을 뿜어내던 거대한 도로는 온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을 위해 넓게 열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알록달록하고 은은한 빛을 머금은 연등들이 바람을 따라 기분 좋게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는 차가 다니지 않는 넓은 왕복 차선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정말 오늘 여기가 다 우리 길이야?” 묻는 목소리가 사뭇 귀엽게 느껴졌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그야말로 인종과 세대를 초월한 수십만의 인파가 한곳에 모여 있었다. 올해



연등회에 모인 인원만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는 안내 멘트를 들으며,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다.

종로 거리가 푸르스름한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드디어 연등회의 꽃이자 모든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연등행렬의 시간이 다가왔다. 행렬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무려 5만 명에 달한다고 했다. 우리도 미리 준비한 작은 등에 조심스럽게 불을 밝혔다. 한두 개일 때는 가냘프게 흔들리던 불빛들이, 주변에 선 수많은 이웃의 등불과 하나둘 연결되더니 순식간에 종로 바다를 가득 채우며 거대하고 따뜻한 빛의 물결로 변해갔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등불은 더 빛나

아이들은 자신이 든 손 등불의 은은한 주홍빛이 마냥 신기한지, 걷는 내내 등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힘들다고 칭얼대던 작년과는 사뭇 다른 진지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무엇보다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걸었던 길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게 됐다. 두 아이를 키우며, 혹은 일상을 살아내며 내 안의 등불을 돌볼 여유조차 없이 늘 밖으로만 시선을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스쳤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 주겠다는 핑계로 정작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내 마음의 평안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소홀했던 내 자신을 이제는

토닥여주려고 한다.

주위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가 든 등불의 가치는 더욱 빛났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가, 수만 개의 연등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풍경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아이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이 길은 오랫동안 기억될 '동행'일 것이다. 🍁

창립 30주년, 뉴욕 불광선원 봉축대법회

언어와 문화를 지켜가는 부처의 아이들



5월 24일 새벽, 긴 비행 끝에 마주한 뉴욕의 아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낯선 도시의 이른 아침은 빗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광선원으로 향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졌다. 비 내리는 뉴욕의 아침 끝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불광선원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불광선원으로 향한 인연은 라스베가스 보리사에서 먼저 닿았다. 미국 한인 불교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가 오랜 시간 자리를 잡아 왔다는 스님의 이야기는 오래 마음에 남았다. 아이들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어떻게 만나고, 부모와 스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행을 어떻게 곁에서 받쳐 주는지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

화채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다하는 작은 공양

비가 내리는 아침, 선원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장면은 법당의 장엄함보다 비를 막기 위해 세워 둔 천막 아래의 분주한 움직임이었다. 천막 아래에는 커다란 통과 컵, 과일, 우유, 얼음이 놓여 있었다. 옛되고 순수한 표정, 서로를 부르며 움직이는 모습, 컵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태도는 화채 준비를 단순한 행사 보조가 아니라 대중을 향한 작은 공양처럼 보였다.

아이들의 준비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컵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불교 박람회에서도 만날 수 있을 법한 감각적인 굿즈처럼, 이미지와 문구에는 MZ세대와 알파세대의 감성이 담겨 있었다. 전통 사찰의 봉축행사와 청소년들의 디자인 감각이 천막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장면이었다. 조용한 법당 아래쪽에서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따라 지하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린아이부터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여러 연령의 아이들이 노래를 맞추고 있었다. 노래 연습을 이끄는 선생님은 손짓으로 박자를 짚어 주고, 아이들의 시선과 순서를 살피며 연습의 흐름을 잡아 주었다. 불광선원에 상주하며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돌보고 있는 분이였다. 어린이법회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불광한국문화학교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었다. 지도 법사인 유마스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참선 수행을 이어 온 유마스님은 미국에 오신 지 2년이 조금 넘었다고 했다.

한국어 찬불가 합창으로 뿌리와 이어진다

이윽고 봉축 법요식이 시작되었다. 점등으로 법요식이 문을 열었고, 법당 안의 대중은 합장한 손으로 의식의 흐름을 함께 따라갔다. 향, 등, 꽃, 과일, 차, 쌀을 올리는 육법공양이 이어지며 법당 안의 흐름은 한층 더 깊어졌다. 불상과 연등, 공양물과 합장한 손들이 차례로 모였고, 부처님 오신 날은 한 사람의 기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신행의 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축하공연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대였다. 불광한국문화학교 합창단은 「관세음보살님」과 「꿈꾸지 않으면」을 불렀다. 특히 「꿈꾸지 않으면」을 부르기 시작하자, 법당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배움과 가르침,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타고 법당 안에 번졌다. 무대에 선 아이들은 평소 영어가 훨씬 편한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무대 위의 아이들은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랫말을 불렀다. 영어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한국어로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은 합창 공연 이상이었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고 있었다.

어린이 합창에 이어 불광 중·고등부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졌다. 아이들은 법당 한쪽에서 악기를 챙기고 서로의 순서를 확인하며 무대를 준비했다. 색소폰과 바이올린, 노래가 어우러지자 법당 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다. 연주하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긴장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한 무대를 함께 즐기는 생기가 묻어났다.

축하공연이 끝난 뒤, 법요식은 반야심경 독송과 축사, 법문, 장학금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불광선원 선원장인 대성스님은 한국어로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미국인 스님의 목소리로 법당에 울려 퍼지는 반야심경은 낯설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어 발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성이 목소리 안에 배어 있었다. 축사는 예일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는 일미스님이 맡았고, 법문은 불광선원의 회주스님이 전했다.

장학금 수여식은 불광선원 안에서 자라온 아이들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불광한국문화학교와 법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온 아이들이었다.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카네기 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에 입학하게 된 학생들의 이름이 불리자, 법당 안의 대중은 한마음으로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대학 입학이라는 성취만을 향한 축하가 아니었다. 불광선원 안에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고, 법회와 공동체 활동 속에서 자라 온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을 함께 기뻐하는 응원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설명으로만 전할 수 없다. 불광선원의 아이들은 이웃과 나눠 먹을 화채와 간식을 준비하고, 자신들의 뿌리와 이어진 한국어로 희망을 노래하고 연주하며, 그날의 의미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



화려함도 초라함도 없이, 나도 저러했으면

봄 사찰순례 수도암

수도암이라?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사찰이다. 하기가 불교를 접한 지는 한참 되었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사찰순례를 다녀본 적도 없으니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작은 암자를 기대하고 도착한 수도암은 험한 산속에 비교적 넓은 공간에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다. 높고 험한 산속에 이렇게 크고 웅장한 사찰이 있다니 그리고 이 사찰의 가람은 왜 이리도 수수한 매력을 지녔을까? 단청이 있는 듯 없는 듯 여느 큰 사찰에서 풍기는 화려함은 없고, 수행승의 꾸미지 않은 수수한 외모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곳곳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수하고 도도한 수도암이 여기 있다. 가파른 산등성이에 번듯하게 자리한 가람에 한번 놀라고 그 가람의 순수한 매력에 또한번 놀란다. 수도암의 중앙에 위치한 대적광전에 들어서니 커다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맞잡고 법당 중앙에 턱 하니 자리 잡고 계신다. 법당 안에 모셔진 석조 부처님 모습은 초보 불자의 눈에는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높고 험한 산속에서 웅장하고 도도한 가람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찾는다. 최근 경전반에서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찾아보자. 사자를 타고 계신다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과 자비 실천 보현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부처님 오른쪽에서 사자를 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사자의 모습은 안 보일까? 자세히 보니 머리에 꽃장식을 한 귀여운 모습을 한 사자 위에 문수보살이 구름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계시고, 그 옆에 흰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 보현보살은 참으로 인자한 모습이다. 손 모양은



‘아미타구타인 중품상생’의 모양으로 계신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선무(禪舞)하면서 익힌 손가락 모양도 보이고, 사자도 흰 코끼리도 보인다.

이들 상징은 무슨 의미일까? 특이한 것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벽에 부조 형태로 모셔졌다는 것이다. 법당 안의 좁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배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을 뒤로하고 마당에 나오니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대적광전의 꽃살문 단청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 자체로 편안하고 품격있는 존재. ‘참 좋다. 나의 삶도 저리하면 참 좋겠다.’ 대적광전 옆에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는 약광전, 대여섯 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다. 단 한 번의 삼배로도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다 고쳐주실 듯하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니 넓은 절 마당이 눈에 띈다. 해발 1,317m의 수도산 일명 불령산이라 불리는 가파른 산세에서 수도암을 보호하는 듯, 대적광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듯한 형상을 한 축대가 인상 깊다. 튼튼하게 보이는 웅장한 큰 바위와 작은 돌들이 요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어 왔으리라. 나는 언제나 저 바위처럼 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여하고 동요하지 않는 불취어상(不取於相) 여여부동(如如不動) 할 수 있을까?

무심하게 절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직지사 이동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서두르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 가운데 주지스님은 수도암 선방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아마도 수도암에서 가장 자랑하고픈 곳이 아닐까. 빠른 걸음으로 선방이 있는 건물로 이동하니 ‘아 이곳이 진정 수도암에서 가장 명당자리이구나’ 감탄이 절로 난다. 저 멀리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봉우리가 물속에 비치는 연꽃 봉우리처럼 희미하게 눈에 들어온다. 풍수지리에 문외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곳이 과연 좋은 자리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온갖 번뇌 다 내려놓고 가세요

“스님 여기가 수도암에서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선방이 아닙니까” 과연 여기가 선방이로구나. 선방 안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꽤 넓은 방 중앙에 작은 부처님 한 분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세상살이 온갖 걱정거리, 고민, 번뇌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우리 선방 스님들이 갈고 닦고 해서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세상살이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주지스님의 “여기 다 내려놓고 가세요”라는 한 마디에 봄 눈 녹듯 사라진다. 나는 여기다 무엇을 내려놓고 갈까?



시간이 아쉽다. 단 한 시간이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호흡에 집중하며 가부좌 틀고 앉고 싶다. 아쉽게도 일반인들을 위한 선방은 없단다. 단지 한 달에 한 번 주지스님께서 설법해 주신다고 한다. 여기 수도암에 계시는 부처님이라면 일생일대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와 볼까? 순간 생각이 많아지는데, 갈 길이 바쁘단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직지사로 향하는 길에 옆자리에 앉은 도반에게 제안해 본다. “선생님 우리 한 달에 한번 여기 와서 기도해 볼까요?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토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일요일 법문 듣고 가면 되지요”. 🌸

몸을 담은 모든 곳이 수행처요 새벽예불하는 내집이 기도도량

기도한다는 말보다 수행한다는 말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동덕여고 불교반 창립 법회 때 무진장스님의 불교 강의를 처음 들었고, 직후 여름방학에 3박 4일간 수련회에 동참한 절이 수원 의용주사다. 새벽예불의 경이로움에 빠지고 밤하늘 찬란한 별빛의 정기를 받으며 스님처럼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거리의 소음이 목탁 소리로 들렸던 신비함도 맛보았다.

무진장스님을 초청하여 성신여대 불교학생회 창립 법회를 열었고, 13명이 4박5일 동안 동화사, 직지사, 해인사, 범어사, 통도사, 석남사를 순례하면서 성철스님과 경봉스님과의 특별한 추억도 담았다. 불교동아리 행사로 시도한 여행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큰 가피를 받았던 것 같다.

4학년 때,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엄마와 함께 광덕스님 법문을 들었던 종로 3가의 대각사는 소중한 인연을 맺어준 절이다. 광덕스님은 후일 친정아버지 49재를 직접 주재해주셨고, 대각사에서 『불광』지 기자로 봉사하던 오봉거사와 결혼할 때 주례도 해주셨다. 결혼식 장소로는 교통도 불편하고 협소한 칠보사이지만, 석주스님께서 결혼선물로 주신 '자실인의(慈室忍衣)'는 여전히 우리 집 가훈처럼 거실에 걸려있다.

부모님 49재부터 혼인까지 부처님의 가피를 입다

부처님 일에만 전념하는 남편이 대신 기도해주기를 믿었던 탓일까? 결혼 후에 가정일, 강사, 박사과정 등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진 내 생활에서 불교의식은 일상에서 멀어졌다. 다행히 전국대학생 불자수련회 참여로 처음 갔던 <도선사>가, 힘들 때마다 달려가는 나의 기도 사찰로 스며들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하신 청담스님을 공경하며 참배하던 석불전에서 밤새도록 염불과 절을 하다 보면, 남편도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철야 기도의 마력이 생겨났다. 물론 집에 도착하자마자 금방 마귀로 변하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신도로 등록하기를 꺼리던 나에게 도선사 석불전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서 부담감 없이 기도하는 도량이다

가정일과 교수로서 너무 바쁜 일과로 지치고 예민해져 있을 때, <마음수련원>을 만났다. 우명스승님이 창시한 수행법은 '나'를 철저히 없애고 '참 나'를 찾아가는 독특한 명상법으로 8단계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겨울방학에 1주일 예정으로 <논산 마음수련원>에 갔다가 연장해서 4단계까지 수료했다. 생전 처음으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 달 동안 명상하면서 48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았다. 모든 괴로움이나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되었으나 다른 사람처럼 잠시라도 선정에 드는 체험은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혜선원>은 어머니 49재를 지내면서 처음 신도로 등록한 사찰이다. 지장전에 친정과 시댁 부모님의 영구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참배하러 간다. 노원구 지역에 자비나눔 봉사를 실천하며, BTN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시는 호연 주지스님의 특별한 도움도 받았다. 특히 금년 1월 10일에 입재해서 2028년 10월14일에 회

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 및 원돈대계수계 대법회’에도 동참하고 있다. 옥상에 ‘하늘법당’과 ‘법화칠보탑’을 조성하는 불사에 대법륜 공양자로 보시하여 공덕의 환희심도 처음 느껴보았다.

사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라는 것을 이제야 일깨워준 곳은 7년 전에 소개받은 <보리선수 약사선원>이다. 청짚고원에서 수행한 진푸티종사님이 약사부처님의 12대 서원을 추종하며 1991년에 창시한 <보리선수>는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캐나다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독창적인 불법수행을 전파하고 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소개 받고 <백옥 약사선원>에 가서 처음 배운 수행은 나무를 가운데 두고 방향을 바꿔가며 70분 동안 걷는 ‘팔괘내공’이다. 사실 1주일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던 내가 더 힘든 상태라 선원에는 자주 갈 수 없었다. 거실에 커다란 화분을 놓고 매일 팔괘내공을 수행한 덕분에 항암주사와 방사선치료도 잘 이겨냈다. 병기도 내지 않고 마지막 학기 수업을 원만하고, 2018년 8월에 고별강의로 퇴임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관상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강반’ 수업에서 채워진 것 같다. <백옥 약사선원>은 하루 종일 모든 수행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아무 때나 가도 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수행처가 되었다.



정혜선원 옥상칠보탑 낙성식에서



백옥약사선원 법당에서 팔괘내공 수행

55년 세월 후에 새삼 깨닫는 나의 서원은 무엇인가

용주사 수련회에서 정무스님께서 처음 받은 법명이 ‘회향(廻向)’이다. 55년의 세월을 무심코 지내다 이제야 그 법명이 사명감처럼 다가왔다.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불자들의 봉사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에서 9차 108인회에 가입하라는 제안에 바로 응할 수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2023년에 한국에 오신 진푸티종사님께서 수계해주신 법명은 ‘윤오(潤悟)’다. 편하게만 수행하던 나에게 경중을 올린 법명이다. 문득 내 서원이 무엇이었던가? 자문했다. 대불연행사에서, 앵무새처럼 외치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떠올랐다. 그리고 모든 법회를 마칠 때마다 ‘사홍서원’을 하는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가 첫 번째 서원이라는 점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졌다.

법당에서 삼배의 절을 할 때마다 동덕여고 불교반에서 따라하던 발원문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가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큰 뜻 지키오며 맹세코 큰 사업 성취 하겠나이다
 저희에게 지혜화 자비와 용기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큰 뜻’과 ‘큰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암송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몸을 담았던 모든 곳이 나를 단련시킨 수행처였고, 7년 전부터 매일 아침예불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집도 나의 기도도량이다. 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은다. 🌸

비구니 최초의 어산어장 동희 스님

범패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수행

신라 진감국사 때 시작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의 핵심이며 불교예술의 정수인 소리와 작법을 평생 수행으로 삼아온 스님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인 동희 스님이다. 어산어장은 불교의 의례와 의식을 관장하는 최고의 권위자를 의미한다. 스님은 2022년 종단 역사상 최초의 비구니 스님 어산어장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불교의례 전통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되었다. 어산은 범음과 작법으로 구성되는 범패를 말하며 소리와 몸짓을 뜻한다. 오랜 세월 비구스님 중심으로 전승되던 분야였기에 비구니가 어산의 최고 경지에 오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동희 스님은 수행자의 원력 하나로 그 벽을 넘어섰다.

속기 하나 없는, 무념 무상의 소리와 몸짓

필자가 어장 동희 스님(이하 어장스님)을 처음 뵈는 것은 지난 2024년 11월 29일 남산골국악당에서 진행된 <천상



의 소리와 작법> 공연으로, 범패의 정수를 모아 관객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본래 마음자리를 소리와 작법으로 전달하여 수행자이자 예술가로 살아온 스님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자리였다. 기도와 참선을 불교의 정수라 믿고 천도재 등에서 사용되는 불교의식 정도로만 알았던 소리와 작법무를 어장스님과 그 제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보여주어 누세의 업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특히 속기 하나 없는,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눈빛과 몸짓인 어장 스님의 범고무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몸짓만 보였고, 혼자서 혹은 여럿이 함께 한 소리는 120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귀에 꽂혔다.

그날 이후 어장스님은 차갑지만 그 글은 따듯하게 읽게 되는 “비구니 범정스님”으로, 오드리 헵번의 주름을 연상시키는 얼굴의 주름은 “더 없이 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었다.

영산재가 행해지는 봉원사 다실에서 뵈 어장스님은 남산골국악당에서 뵈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인터넷 자료를 보았다고 말씀드리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쓰는 것 말고 써야 할텐데...” 범패는 넓은 영역이어서 한 두 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범음은 자연의 소리이고, 작법은 자연의 몸짓입니다. 범음은 깃소리로 부처님의 명호를 함음으로 길게 하며 한 자 한자 대중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 주고, 훗소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범패는 오선지 없이 음의 크고 낮음인 사성으로 구전으로 배우고 전해집니다.

6살부터 82세인 오늘까지 한 거라곤 몸으로 하는 공양인 범패인데 수행이니 하였지요. 처음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 말과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까봐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염불하면 행복합니다. 사실 범음과 작법무는 우리 스님들이 해야하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전에는 절에 들어오면 무조건 긴 세월을 두고 천천히 몸으로 익혔지요.

일반 불자들이라면 범패를 명상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한 예로 불교를 모르는 러시아인들에게 30분씩 마음을 비우고 소리를 따라 해보라 하였더니 다 눈물을 흘리더군요.

염불을 한 음으로 길게 하다 보면 하늘에 오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마하반야바라밀을 들숨에 몰입하고 날숨에 끌어올리면 어느새 환희심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몸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염불의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동작이 나오고,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통로를 통해 중생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봉원사 영산재에서도 맑고 당당한 스님의 소리는 좌중을 압도하였다. 조용히 앉아있다 가끔 일어나 제자들의 몸짓을 지켜보는 표정도 변함없이 고요했다. ‘소리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몸짓이 나온다’는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관람석에 앉으니 바람이 느껴지고, 어느새 태평소도 더이상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춤사위마다 지극한 예경이 느껴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염불과 생소한 의식들마저 부담없이 함께 즐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불교의식의 여러 작법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

의식이 끝나고 스님께서 웃을 챙기는데 군데군데 기운 모습이 보였다. 안의 웃도 마찬가지로. “내 웃도 나와 같이 나이를 먹어 안 기운 웃이 없습니다.” 덧댄 모습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보였다.

범패는 한 치의 어김이 없는 드러난 수행이었지만, 고깔에 풀을 먹이고 도량에 꽃을 심고, 옷을 깎는 그 매일의 일상 또한 스님의 평생의 수행이었다.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스님의 소리와 몸짓이 그대로 진한 감동이었으리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영산재 등재

지난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영

산재가 등재되었다. 영산재는 범패(梵唄) 작법무(作法舞), 의식 절차, 불교 철학과 수행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불교문화유산으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법회를 재현하는 의식이다. 그 안에는 평화, 생명 존중, 자비, 공덕 회향의 정신이 담겨 있어 유네스코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영산재의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범패로 흔히 "영산재는 범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불교의 대표 의식"이라고 한다. 동희 스님과 같은 어산어장(魚山魚丈, 범패의 전승 책임자)은 바로 이러한 영산재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희 어장스님은 1945년 해방동으로 한국전쟁 당시 부모를 잃고 6살에 범패로 유명한 청량사에 들어와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매일 염불과 작법을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어서 양재기로 태징을 삼아서 노는 등 염불의 신동으로 불리었다. 이후 13세 때 당대 최고의 범패승으로 꼽히던 송암 스님 문하에서 범음과 작법무를 익혔다. 당시에는 “비구니가 무슨 영산을 하느냐”는 편견과 냉대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스님은 범패를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수행으로 받아들였다.

불교의례(佛敎儀禮)는 불교의 가르침과 신행 생활을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표현하는 모든 행위로 예불, 참회, 발원, 수계식, 다례, 영산재, 수록재, 천도재 등이다. 의례를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와 형식이 불교의식(佛敎儀式)으로 영산재를 예로 들면 시련, 대령, 관육, 상단권공, 법문, 식당작법, 회향의 순서로 하는 것이다. 범패는 영산재(靈山齋), 수록재(水陸齋 모든 외로운 영혼에게 공양을 베푸는 대규모 천도 의식), 천도재(薦度齋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 예수재(豫修齋 살아 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고 업장을 참회하는 의식) 외에도 각종 재(齋)와 법회 즉 백중기도, 수계법회, 점안식, 낙성식, 개산대재, 추모재 등의 의식에서도 사용된다.



범패는 사람의 목소리 자체를 가장 중요한 범음(法音)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음(聲音)이 중심이다. 그러나 여러 불교 의식구(儀式具)와 악기가 함께 사용되어 장엄함을 더한다. 범패에 사용되는 악기인 범종(梵鐘), 범고(法鼓), 목어(木魚), 운판(雲版)을 합쳐 사물(四物)이라 부르며, 하늘·땅·물·공중의 모든 생명을 깨우는 범음을 상징한다. 또한 요령(搖鈴)과 금강령(金剛鈴)은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한다.

범패는 크게 세 가지로 훗소리(가장 격조 높은 범패, 느리고 장중함, 수행성이 강함), 짓소리(화려하고 선율 변화가 많음), 화청(우리말 가사 사용, 설법적 성격으로 옛날 스님들이 불교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부른 노래)가 있다.

범음(梵音)은 "청정한 진리의 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소리"로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법의 소리이다. 범패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讚佛), 영산재나 수록재에서는 부처님과 보살님, 호법신중을 모시는 청사(請詞), 참회와 발원, 영가 천도, 회향으로 나뉘어진다. 범음의 가장 깊은 의미는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음성을 원음(圓音), 묘음(妙音), 범음(梵音)이라 한다. 이는 사람마다 각자의 근기에 맞게 이해되는 자비로운 소리라는 뜻이다.

작법무(作法舞)는 불교의식에서 행하는 춤으로, 단순한 무용이 아니라 몸으로 올리는 공양이자 수행이다. 특

히 영산재에서는 범패, 의식, 작법무가 하나가 되어 장엄한 범회를 이룬다. 작법무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나비춤(蝶舞)으로 나비는 해탈과 자유를 상징하며 법계를 장엄하며, 매우 느리고 우아하여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표현한다. 바라춤(鉞羅舞)은 '바라'를 들고 추는 춤으로 악귀와 번뇌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 법고춤(法鼓舞) 법고를 치며 추는 춤으로 중생을 깨우며 자비와 교화의 의미다. 타주춤은 의식구를 들고 추는 작법무의 통칭이다. 작법무는 "몸으로 독경하고, 몸으로 범패하며, 몸으로 공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산재에서는 범패는 입의 공양, 작법무는 몸의 공양, 관상과 발원은 마음의 공양으로 설명하며, 이는 불교의 신·구·의(身口意) 수행과 연결된다.

범패는 몸·말·마음을 함께 닦는 공경과 자비 수행

동희 어장스님에게 범패는 "몸·말·마음(신구의)을 함께 닦는 공경과 자비를 실천하는 의례 수행이다. 그러므로 어장스님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범패와 작법무를 연구하고 익히고 전수하는 일에 몰두해 왔다. 지금도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의식문을 살피며 공부를 하고 있다.

범패는 스승의 소리를 듣고 몸으로 익혀 전승하는 구전심수(口傳心授)의 전통이다. 스님은 젊은 시절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스승의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들으며 공부했다고 회상한다. 스님은 동희범음회를 만들어 제자를 양성하고,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이끌며, 범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로 18개의 범음집을 발간하는 등 악보와 무보를 만들고 연습용 도구를 개발하는 등 각종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95년 첫 무대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 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스님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알리는 문화행사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 공연을 하면서 언어는 달라도 범패가 전하는 정성과 자비의 마음은 세계인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비구니 어산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진관사에서 열려 스님의 수행과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는 스님의 범패 음원과 수행 자료, 어린 시절 사용했던 냄비뚜껑 바라 등 귀중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유산의 한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의 소망을 묻자 스님은 대답했다.

“스승님께 배운 것을 후학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싶습니다. 범패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팔십을 넘긴 나이에도 스님의 음성은 맑고 단단했다. 한평생 범음을 수행으로 삼아온 세월이 그 목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동희 어장스님이 지켜온 범패는 단지 옛 전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비와 공경, 그리고 수행의 의미를 다시 묻는 살아 있는 법음이다. 🌸

합한 불교에서 열린 불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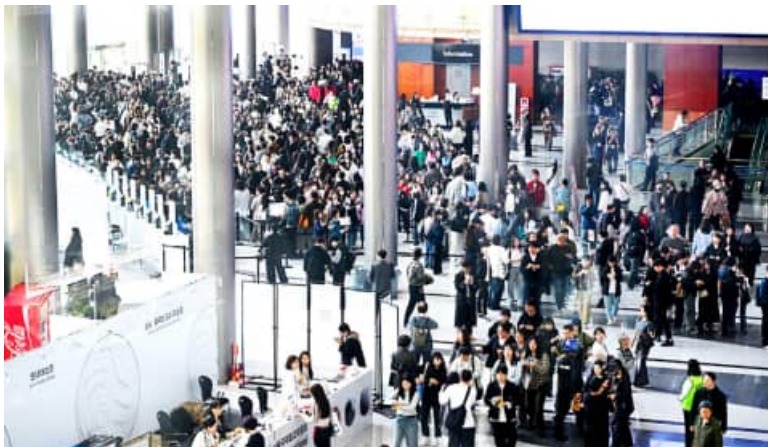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남긴 질문

2025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불교 행사에 ‘오픈런’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젊은 세대가 몰려왔으며, SNS에는 연등과 염주, 스님, 명상, 사경, 불교 굿즈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나는 당시 그 현장을 보며 “강남 한복판에 불교가 완전히 진출했다”는 생각을 했다. 봉은사와 코엑스가 연결되고, 삼성동 일대가 며칠 동안 불교문화의 장으로 바뀐 풍경은 분명 상징적이었다.

관람객 절반이 무종교, 80%가 MZ세대

그리고 1년이 지난 2026년, 그 흐름은 더 분명해졌다.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4일 동안 약 25만 명이 다녀갔다. 지난해보다 5만 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사전등록과 할인 예매 인원은 개막 전 5만7000명을 넘어섰고, 행사 3일째에는 안전 문제로 현장 등록을 조기 종료할 정도였다. 방문객 구성도 인상적이다. 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전체 관람객의 약 73%가 MZ세대였고, 무종교 관람객도 48%에 달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MZ세대 비율이 81.7%, 무종교인 비율이 약 40%로 나타났다. 숫자에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같다. 불교 신자만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올해 박람회와 함께 봉은사 일원에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약 5만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I 시대의 선명상’이라는 주제에 맞게 운영된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은 긴 대기 줄이 생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AI가 인간의 일과 언어, 사고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어떻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다시 만나고 있다.



25만 명 인파가 찾은 2026 서울국제불교 박람회

올해 불교박람회가 작년과 달랐던 점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하나의 문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작년이 “불교도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이었다면, 올해는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확인에 가까웠다. 젊은 세대는 불교를 낡고 무거운 종교로만 보지 않았다. 사경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되었고, 명상은 현대인의 심리적 피로를 덜어 주는 방

법이 되었으며, 연등과 염주, 불교 캐릭터와 굿즈는 불교를 처음 만나는 친근한 입구가 되었다. 박람회 이후 이어진 연등축제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었다. 불교는 이제 법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의 거리, 전시장, SNS, 일상의 취향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굿즈에서 사경과 명상을 거쳐 자기 성찰로 이끌어야

물론 이번 박람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굿즈 판매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불교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수행보다 이벤트가 앞서는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다. 실제로 일부 상품들은 불교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듯 보이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굿즈판’처럼 보인 측면도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반아심경의 핵심 개념인 '공(空)'을 공(BALL)으로 해석한 불교박람회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불교가 유행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유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리로 불교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사찰의 고요함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향 냄새와 차 한 잔의 여유에 마음을 연다. 어떤 사람은 사경한 장, 염주 하나, 작은 키링 하나를 통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 중요한 것은 입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입구를 통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이다.

마음 속의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불교는 본래 닫힌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열린 종교이고, 열린 철학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과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께 왔다.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까지 모두 부처님 앞에 섰다. 부처님은 그들을 먼저 꾸짖지 않았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법을 설했다. 그것이 방편이고, 그것이 불교의 깊은 포용성이다.

지금 한국불교 앞에 놓인 과제도 여기에 있다. 굿즈로 시작한 관심을 사경으로, 사경을 명상으로, 명상을 자기 성찰로, 자기 성찰을 불교철학의 깊이로 이끌어야 한다. 불교가 힙해진 이 흐름을 단순한 유행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붐을 잘 붙잡아야 한다. 불교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불교가 진짜 열린 종교, 열린 불교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매개체는 다양할 수 있다. 굿즈일 수도 있고, 명상일 수도 있고, 사경일 수도 있고, 연등축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의 부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불교가 이 흐름을 잘 인도한다면, 2026년 불교박람회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한국불교가 다시 세상과 만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



남녀 인연부터 입시 기도까지

칠석날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

옛날 어느 별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다. 처녀는 베 짜는 솜씨가 으뜸이었고 얼굴도 고왔는데 나이가 차도록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나서서 사윗감을 찾았다. 혼기가 짝 찬 남녀를 두고 보지 않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는 옥황상제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베 짜는 처녀 직녀가 그의 딸이었다. 하늘에는 인연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으나 옥황상제는 자식의 일이었기에 직접 나섰다.

옥황상제는 이웃 별나라의 착하고 부지런하고 잘생긴 총각을 사위로 맞았다. 그는 소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옥황상제의 중매로 만난 직녀와 견우는 한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고,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행복에 취해 베 짜는 일과 소 치는 일을 잊은 채 신혼의 달콤함에 몰두했다. 하늘나라에서는 혼기가 짝 찬 남녀가 인연을 만나는 것만큼 규율도 중요했다. 견우와 직녀는 직분을 소홀히 한 벌로 은하수 동쪽과 서쪽, 끝에서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전설이 된 연인, 견우와 직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생이별한 견우와 직녀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둘은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겼다. 그리고 마침내 7월 7일, 직녀의 별과 견우의 별이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 되었다. 견우와 직녀는 둘 사이를 흐르는 은하수 앞에서 서로 마주 본 채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해야 은하수를 건널 수 있단 말인가. 1년을 기다렸으나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만날 수 없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견우와 직녀의 눈물은 지상으로 흘러가 폭우로 쏟아졌다.

한창 곡식이 여물어야 할 시기에 물난리가 나자 당황한 옥황상제는 까치와 까마귀를 불러 견우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도록 하였다. 오작교를 밟고 마침내 견우와 직녀가 만난 순간, 비는 그치고 하늘이 푸르러졌다. 다음 날 아침, 견우와 직녀는 다시 헤어져야 했으나 이제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있으니 첫 이별보다 애달프지는 않았다. 그후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면서 흘리는 아쉬움의 눈물은 칠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고마운 단비가 되었고, 절기와 날씨가 무엇보다 중요한 농경민족에게 비가 내리는 칠석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되었다. 정말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급제와 인연을 발원하는 칠석날과 칠성님

견우와 직녀의 재회 이후, 7월 7일은 '칠석(七夕)'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명절이 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 7월 7일은 3월 3일, 9월 9일과 더불어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과거를 치르는 삼일제(三日製) 중 하나였다. 칠석제는 조선 후기, 정조 임금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시행되었다. 삼일제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정시가 아니라 진사와 생원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기숙하고 있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다.

성균관의 정원은 200명인데, 정시인 대과 합격자는 33명이었다. 즉, 수년에 걸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험을 차례대로 치러도 최후의 33인 안에 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처럼 과거급제는 실로 대단한 일이었으며 가문의 자랑이었다. 3대에 걸쳐 급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가문은 양반 사회에서도 암묵적으로 무시당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특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칠석은 성균관 유생들에게도 중요한 기회의 날일 수밖에 없었다. 유생들이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가족들은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다. 예나 지금이나 입시 기도는 기도의 꽃이기 때문이다. 칠석날이 되면 성균관 유생의 어머니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칠성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칠석날, 칠성님께 기도를 올리면 영험하다는 믿음은 뿌리를 내려갔다. 이처럼 칠성님께 올리는 기도에는 중생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망과 바람이 담겨 있다.

떨지 않고, 별일 없이 무사히 시험을 보기를 바라는 기도, 내가 아는 것이 문제로 나와서 답안을 술술 작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기도, 취업과 승진에 대한 기도, 자식을 발원하는 기도, 건강을 발원하는 기도, 장수를 바라는 기도, 부귀영화를 바라는 기도까지 우리 조상들 특히 가정의 안주인들은 칠성님을 찾았다. 칠성님께 올리는 기도는 꼭 칠석날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남녀의 인연을 바라는 기도는 꼭 칠석날을 지켜서 당사자들이 직접 하곤 했다.



순천 선암사 칠성각

원자 탄생 발원하던 내원암의 칠성각

불교에서도 칠석은 기도를 올리는 중요한 날이다. 사찰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은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전각은 칠성각과 산신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애로운 분이나 산신님과 칠성님은 중생의 욕심이 담긴 바람을 이뤄주는 분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누구보다 강력한 성리학 군주였던 정조도 후계자만큼은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했다.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정조와 후궁 의빈 성씨

첫아들 문효세자에 이어서 사랑하는 후궁 의빈 성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 정조의 후사 문제는 심각해졌다. 후시를 위해 정조는 세 차례 간택후궁을 들었다. 수빈 박씨는 마지막 간택후궁이었다. 수빈 박씨가 입궁한 후 왕실의 모든 여인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녀의 회임을 간절하게 기도했다. 정조는 마흔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직 후사가 없었으니 그야말로 손이 끊어질 위기였다. 이에 왕실에서는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수락산 내원암에서 원자 탄생을 발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300일 기도 끝에 마침내 수빈 박씨가 후궁이 된 지 4년 만에 원자(순조)가 태어났다.

순조는 무사히 자라서 세자로 책봉되었고, 정조는 수락산 내원암에 ‘칠성각’을 지어주고 ‘관음전(觀音殿)’ 현판을 내렸다. 원자가 태어난 후 사찰을 증창한 것이 아니라 칠성각을 새로 지어주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하지만 내원암은 사찰 증창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임금이 지어준 칠성각은 내원암의 영험함을 왕실이 보장한다는 증명서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살던 작은 암자, 내원암은 그렇게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 되었고 칠성각은 소원 성취 도량으로 지금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

○ 불교여성개발원 제41회 불이상 실천 부문 수상

6월 18일 오전, 불교여성개발원이 제41회 불이상 실천 부문에 선정되었다. 불이상(不二賞)은 여성 재가불자 단체인 불이회에서 한국 불교계의 학술 역량 고취와 대승적 이념 구현을 위해 매년 불교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2000년 11월 27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26년간, 1-2대 이인자 원장, 3-4대 김인숙 원장을 비롯하여 13대 원장에 이르기까지, 수행, 교육, 봉사를 이념으로 하여 여성불자108인회, 가족지원센터, 건강밥상지킴센터, 교정교회센터,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명상리더십센터, 불교여성연구소, 생명존중운동본부,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수익사업단, 지혜아카데미, 우바이예찬 편집위원회와 부산지원, 강원지원, 대구경북지원 그리고 108인회 각 차수 활동 등의 조직을 통해 회원 개인의 전문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회향, 실천해온 결실을 높게 평가받은 수상이라 하겠다.

2026 불이상 시상식은 7월 1일에 거행될 예정이다.

○ 원력을 모아 꽃피운 대구경북지원 창립

수행과 나눔을 지역에서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여성 불자들의 원력에, 25년이라는 저력을 가진 불교여성개발원의 무한한 지지와 응원이 모여 대구경북지원이 창립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2014년 10월 불교여성개발원 대경지원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2016년 본원 행정안전부공익사업 “어르신과 함께 희망을 여는 웰다잉 교육 재능 기부 나눔활동”을 대구회원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 8월 문경 한산사 워크숍에서 개발원 조직 및 발전계획에 관한 토론을 통해 전국 조직화에 대한 재논의



가 이루어졌다. 2024년 9월 대구청수선원에서 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을 통해 대경지역 회원



30여 명이 충원키로 결의하였다. 2026년 2월 불교여성개발원 정기이사회에서 대경지원 창립을 의결하였다. 창립 준비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준비 모임 속에서 여성불자의 역할과 지역불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원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마침내 2026년 3월 29일, 직지사 중암에서 진행된 대경지원 창립식에 많은 사부대중과 내빈들이 함께 자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였다. 대경지원 회원들은 창립취지문 낭독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다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불교의 새로운 길을 발원하였다.



정대련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대경지원이 지역 포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창립식에 참석하신 여러 내빈들의 축하 말씀이 이어졌으며, 대경지원의 초대 이정숙 지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정에서는 따뜻한 지혜의 어머니로, 사회에서는 이웃을 보살피는 자비의 실천가로서 불교의 가치를 널리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명법사이신 직지사 중암 회주 도진스님께서 ‘앞으로 여성불자의 나아갈 방향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여성불자가 되어, 모두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서원해 주셨다.

대구경북지원은 앞으로 수행,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여성불자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불교문화 전하는 데 힘써 나갈 예정이다.

• 글_채대봉(9차 108인, 대경지원 총무)

○ 15차 금강경 백일기도 회향

2022년 2월,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이 금강경 기도방을 만들면서 1차 100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개발원이 조계종 포교원에서 독립되어 나올 즈음 나름 곤경에 처해있을 때 시작된 기도방이다. 그동안 자비도량참법, 법성계, 반야심경 사경기도를 거쳐 4차 기도부터 금강경 기도를 시작해 1100일 동안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며 15차 회향과 16차 입재를 마쳤다. 동참하고 있는 회원이 현재 52명이다. '다문(多聞)이면 지혜가 증가하며 성불에 대한 서원을 잃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며 정진한 시간은 부처로 살겠다는 서원을 돈독히 한 시간이었다.



여름 햇살이 유난히 찰랑이던 6월 17일, 산청 선림사에서 가진 회향 겸 입재식에 스물한 분이 참석했다. 전날, 점심 공양 시간쯤 도착해 정진하는 분들을 위한, 진심을 담은 점심 공양부터 이미 감동의 물결이었다. 공양 후 2시부터 저녁 공양 전까지 두 시간여 동안 기도를 느낀 소회와 법사님께 질문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바르게 정진하며 수행을 경책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저녁예불 후 법당 앞마당에서 김옥경 님(7차)의 라인댄스와 정은희 님(6차)의 웃음을 자아낸 공연도 아마 선림사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 아닐까 싶다.

17일 오전 9시에 회향겸 입재식이 시작되었다. 금강경 독송을 7독 하고 잠시 좌선한 다음 정대련 원장님의 감사인사 말씀이 있었다. 다음 이어진 선림사 보우법사님의 '이것저것 헤아리지 말고 오로지 면면밀밀 정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전해 주었다.

처음 1차 백일기도를 열고 지금까지 함께 정진하고 계

신 김선옥 고문님, 그 바톤을 이어받아 새벽 5시에 기도방 문을 열고 한 번도 빠짐없이 선림사행을 함께했던 이기향 원장님, 취임 후 연일 공사다망한 중에도 기도방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현 원장님까지 세 분이 법당 앞줄에 앉아 입재식에 참석하니 금강경 기도방이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늘 함께 봉사하시는 도반님을 모시고 오는 강여자 생명존중운동본부장님(6차), 명상리더십센터에서 부처님상담법을 강의해 주시는 백정임 교수님(1차)이 오셔서 더욱 풍성한 회향이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가끔 주변의 사찰을 들러 참배하는 것도 회향·입재식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번에는 산청 수선사를 방문해 1박2일 기도 후 한가한 시간을 즐겼다. 다음 16차 회향일은 가을이 한창일 무렵이다. 단풍으로 물든 선림사에서 치러질 회향이 벌써 기다려진다. 매일 새벽,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그 정진의 시간들도. • 글_박원자(5차108인)

○ 혜충대종사 초청 가족수계법회 개최

불교여성개발원 가족 수계법회가 지난 5월 30일 자비실에서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2022년도에 이어 4년 만에 혜충대종사를 모시고, 여성불자 108인과 총 30명이 새롭게 법명과 수계를 받았다.





최혜경 이사는 손녀와 함께 수계법회에 동참하고 그날의 감격을 글에 담았다.

손녀가 수계 받던 날에

낙산사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기도 올린 후, 조손 간 인연으로 만난 지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면서도 보리방편문 전편을 암송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던 어린 아이는 전생사연이라시던 법사님의 말씀대로 윤회와 전생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해답을 경험하게 했던 스승이었습니다. 간절히 범명을 원하던 박진현이 수련화로 거듭나는 날, 이 할미는 큰 울림으로 불보살님 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련화(修練花)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리아타 실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멋진 불제자로 살아가렴._0_

할미의 발원과 함께 수계법회를 집전하시고 귀한 범명을 지어주신 혜충 스님께도 감사의 예 올립니다.



○ 4·5·6월 운영위원회

2026년 4월 9일, 5월 14일, 6월 11일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4월에는 지하층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세보증금 환불을 위한 1억5천만 원 은행 대출을 의결하였고, 5월에는 수계법회 날짜 변경과 부산지원 자격 여부에 대해 토론하였다. 6월에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위한 확대 임의이사회 날짜 및 장소를 확정하였고, 지층 방수 공사에 대한 2개 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종 진인테리어로 결정하였다.



○ 정영수 안면암 운영이사장,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쾌척

5월 26일 정영수 안면암 운영 이사장(4차)은 2026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으로 1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정 이사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불교여성광장 건립 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올해 바자 기금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불교여성개발원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 정대련원장, 불광법회 박흥우 법회장 퇴임식 참석

불교여성개발원 임원진은 4월 5일 불광사에서 개최한 박흥우 불광법회 법회장 퇴임식에 참석하였다. 박흥우 법회장(김외숙 본원 10대 원장의 부군)은 8년 3개월 동안 불광법회 재가 불자들의 신실한 신행과 투명한 조직 경제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하였다. 퇴임식에는 정대련 원장, 최혜경 이사, 박현주 12차 차수장이 참석하고, 퇴임 축하 화분을 전했다.



○ 故 노숙령 고문 49재

4월 16일 경기도 과천 안면암 포교당에서 회주 지명 큰스님의 집전으로 故 노숙령 고문의 49재가 있었다. 정영수 안면암 이사장(4차)의 헌공 보시로 여법하게 준비된 49재에는 노숙령 고문님의 유가족과 구윤임 이사(11차) 및 정대련 원장 등 본원 임원 12명이 참석하여 실상화 노 고문님의 극락왕생을 염하였다.



다음 날 경남 산청의 선림사에서는 보우 법사님이 노숙령 고문님의 천도재를 준비하여 가신 님의 밝은 길을 위해 기도드렸다.

○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 성불연대 마하마야 페스티벌 개최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인 정대련 (사)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은 5월 30일 오후 4시 조계사 마당에서 열린 마하마야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개최사를 하였다. 민혜성 국악인(12차)은 문하생들과 함께 우리 가락의 흥겨움과 마야 왕비를 찬탄하는 축하공연을 펼쳤다. 당일 마하마야 페스티벌은 준비, 진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옥복연 불교아카데미 대표(8차), 김혜란 전)나 무여성인권상담소장(3차), 이희숙 현)소장(7차), 한혜란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10차) 등 우리 여성불자 108인들의 활약과 헌신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정대련 원장, 부산경남 지역 108인 방문

6월 10일 2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진명순 교수(4차), 홍원숙 원장(8차), 손은주 교장(12차)을 만나 기존 부산지원의 상황과 부산경남지원의 출범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존 부산지원의 창립위원회 회장이신 왕선자 회장님과 부산 감로사 혜충대종사님의 응원과 기도를 기반으로, 김수현 구)부산지원장의 이임식과 신)부산경남지원장 취임식을 준비하여, 부산경남 지역 여성불자의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수행 및 교육, 청정한 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발원하였다.

○ 명상리더십센터, 하동다원 제다실습

4월 25일 부처님상담법 수강생들은 하동다원에 제다실습을 다녀왔다. 쌍계사 금당을 참배하고 능혜스님의 <로전> 화엄백차와 침향 홍차와 말차를 맛보았다. <로전> 화엄백차는 능혜스님이 곡우 전 아직 피지 않은 찻잎으로 재현한 우리 민족 고유의 백차이다. 5월 18일, 백경임 교수의 부처님상담법 심화과정Ⅲ을 종강하였다. 종강 수업은 칭찬충격요법으로 수강생들에게 감동을 더했다. 이기향 고문은 10강을 함께한 도반들에게 저녁 공양을 후원하였다. 이기향 회원께서 제다실습의 향과 맛을 아래의 후기로 전해주었다.



<온고지신 정신이 빛어낸 화엄백차>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 심화과정3에서는 지난 4월 25일 하동 차밭으로 제다실습을 다녀왔다. 지리산 풍광을 대표하는 봄날의 하동이 어떤 곳이던가! 과연 차 창박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울창한 매화 숲길과 산비탈에 터를 잡은 아름다운 계곡마을, 구불구불 섬진강 녹색 물줄기로 어우러진 풍광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시나브로 원유자 도반이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시를 토해내면서 우리들의 환희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모처럼 자연의 가피에 흠뻑 젖어보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올곧게 차 문화의 진수를 추구해오는 김영희 센터장은 이번에도 백차 제다에 일가견을 이룬 능혜스님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단단히 사전 조율을 해놓은 터였다. 수행자의 원력으로 전통 비법의 건강한 차를 통해 중생구제의 뜻을 펴는 능혜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맑고 시원한 차향이 느껴지는 듯했다.

우리는 스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로전문화원에 도착하자마자 각자 바구니를 받아들고 봄 햇살 가득한 차밭 언덕에 올랐다. 자연과 하나 되어 어린 새순만을 골라 따내는 반 시간 울력의 끝은 문화원 공동 작업장의 넓고 둥근 채반 위에 채집한 찻잎을 뿌려 담은 일이었

다. 열두 채반을 가득 채운 찻잎은 하룻밤을 자연 건조한 뒤 다시 황토방 황토 대리석에 뿌려 또 하루를 말린다고 하셨다. 스님은 우리가 실습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둔 시든 잎을 황토방 바닥에 뿌리는 과정을 손수 보여주셨다. 제다 과정 내내 몰입하여 정성을 다하는 도반들의 모습은 진지한 수행자 그대로였다. 도반들은 인공건조기를 쓰지 않고 자연의 바람과 온도를 이용하여 맑고 시원한 맛과 향의 세계를 창조해낸 스님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철학에 깊이 공감했다. 차의 맑고 깨끗한 당색을 의미하는 '백차'라는 이름답게 스님께서 우려주신 화엄백차의 시원하고 맑은 향의 여운은 지금도 나를 감싸는 듯하다. 열두 도반은 다양한 발효백차가 전시된 경이로운 다실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 들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모든 분께 의미있는 하루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 글_이기향(1차 108인)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4월 2일, 5월 7일, 6월 4일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가 열렸다. 4월 회의에서는 4월18일 여성불자108인회 전체 워크숍에 대한 총점검이 이루어졌고, 5월 회의에서는 15일에 개최될 '제18회 복을 부르는 행복바자' 부스 배치와 차수별 목표금액을 결정했다. 6월에는 바자 평가 및 결산을 심의하였고, 바자의 성공을 격려하며 차수별로 순수익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월



임원회의 후 순번제로 점심공양을 준비하기로 하여, 4월에는 4차 황외숙 차수장, 5월에는 12차 박현주 차수장, 6월에는 강영자 차수장이 각각 임원들에게 점심 공양을 마련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차수 만남의 날**

- 1·2·3차 108인회, 출간 기념회

4월 10일 경북공역 근처 h라운지에서 1·2·3차 108인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12월 출간된 『꿈이 길을 만든다』 책의 글 저자 이은영 고문과 그림 저자 하



수경 교수께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축하객으로 참석한 김애주 고문, 조은수 차수

장, 정진희 부차수장 등 1·2·3차 회원과 정대련 원장과 10여 명 회원에게 이은영 고문이 점심 공양을 대접하였다.

-5차 108인회, 바자 평가회

5월 20일 바자를 마친 후 수고한 5차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식사 시간을 가졌다. 올해 바자 결과를

기초로 내년 2027 바자를 준비하는 모임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으고, 오랜만에 함께한

-11차 108인회, 하모니카 강의 개설

5월 29일 12시에 개발원 지혜실에서 11차 바자 결과 및 향후 활동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현숙 차수장 등 참여회원들은 3월말 108인회 워크숍 직후 곧바로 온라인



바자를 시작하여 11차수 단합은 물론 목표금액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집행부의 노고에 공감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7월부터 고불노리게 만들기, 하모니카 연주 강의를 개설하여 11차 108인들 서로 즐겁고 유익한 교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 **가족지원센터**

5월 9일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가 개최한 한부모가족대축제에 정대련 원장, 이영주 108인회 회장, 노인자 부원장, 고은자 센터장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위원 및 다문화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5월 17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조계사에서 주최한 전통문화마당에 부스를 열고 가정의달 기념 손편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모-자녀 간, 조부모-손주 간, 또 여러 외국인 가족들도 가족애를 손편지에 담았다. 6월 17일까지 계속된 가정의달 4행시 한마당 공모에는 4가지 주제(법랑가족, 백팔가족, 자비가정, 동행수행) 관련 31편(성인30, 학생1 응모)이 접수되어, 수상작들에 포상하였다. 종로구 가족지원센터와 협업으로 6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10~13시 2층 지혜실에서 진행되는 <조부모돌봄프로그램>은 9/29일까지 계속된다.



○ **교정교회센터**

— **고봉중학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 4월 최정효 박사의 진솔한 어린 시절 고백으로 프로그램의 문을 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진정성 어린 위로에 학생들은 경계를 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어진 명상 미술심리 시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장점과 멋진 점들을 채워나갔다. 자신만의 멋진 칼라와 빼빼빼뿔하게 써 내려간 각자의 장점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낮아졌던 자존감을 당당하게 'UP'시키는 훈훈한 행복이 있었다. 최정효 선생님이 한 아름 준비해 온 하리보 젤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달콤하고 말랑하게 녹여주었다.



• 5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담으로 유명한 박재희 작

가가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다. 거친 산티아고 길에서 만난 인연들, 그 길 위에서 깨달은 삶의 가치들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펼쳐지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박작가의 눈높이 대화는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닿았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멘토가 준비해 온 퀴즈 선물은 우리 학생들에게 참여도와 큰 성취감까지 안겨주었다.

평소 “치키 치킨~” 노래를 부르며 치킨을 그리워하던 학생들을 위해 매콤달콤한 닭강정을 간식으로 준비했다.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배 든든하게, 행복하게 먹는 소년들의 모습 속에서, 봉사자들도 행복을 선물받은 시간이었다.

• 6월 이윤희 명상센터 원장의 요가 명상으로 우리 소년들의 몸과 마음에 고요함이 자리잡길 기대한다.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5월 9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한 한부모 대축제에 참석하였고, 6월 7일에는 강화도 전등사(주지 여암스님)가 주최한 제21회 이주민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연기되었던 다문화행복가족센터 회원들의 베트남 모국방문프로젝트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위즈덤합창단**

5월 10일 포천 불교사암연합회 포천관등문화축제 및 봉축 점등식에 음성공양을 올렸다. 5월 16일에는 포천 왕산사 팔각 9층통일대탑 조성식에 참석하여 조계종 명예원로회 수장이신 봉선사 밀운 조실스님께서 주시는 ‘사리에 관한 범문을 듣고 찬불가를 공양올렸다. 위즈덤합창단은 향시단원 모집을 하고 있다.



○ **김애주(2차 108인), 황수경(3차 108인)**

3월 22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남산홀에서 열린 2026년 동국대학교 뮤직아카데미 정기연주회에 김애주 고문, 황수경 3차 108인이 출연하여 피아노를 연주하였다. 이번 행사에 사기순 회원, 이윤희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김양희(6차 108인)**

6월 1일부터 6일까지 갤러리1에서 열린 <만다라, 내면의 거울> 초대전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명상 속에서 나를 깨내 색으로 나를 보는 작업인 만다라는 작가의 마음으로 그리는 또 다른 ‘기도’이다.

○ **남동현(6차 108인)**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13박 14일 동안 진행된 제6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온고지신, 퇴계의 길 미래를 열다”에 참가하여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246.5km 도보 걷기에 참가하였다. 남동현 회원은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노인자(5차 108인), 사기순(4차 108인), 박혜상(12차 108인)**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코엑스 전시관 B홀에서 개최되었다. 노인자 부원장은 호두마을 호두 누룽지, 사기순 회원은 민족사에서 출간한 책 홍보 및 판매, 박혜상 회원은 남편 서철교 조각가와 함께 불교 조각 작품을 전시하였다.



○ 맹난자(1차 108인)

5월 18일 평생 동안 집필한 에세이 중 3박스 60여 권을 개발원에 기증하였다. 기증한 에세이는 바자 봉사에 참여한 108인들에게 보시하였다.



○ 성수현(12차 108인)

3월 31일 아리바이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입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아리바이오는 먹는 치매약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 윤자현(11차 108인)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 4층 전관에서 제10회 한국민화창작대작전시회에 총무로 봉사하며 민화를 전시하였다. 25일 오후 4시에 열린 오프닝에 11차 정철재 전 차수장, 최수영 회원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 이영호(3차 108인)

5월 10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영호 센터장은 약 30년간 다양한 가족 사업을 개발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다.



○ 임시연(11차 108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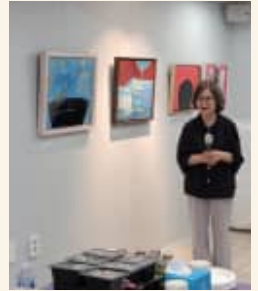
3월 20일 BTN불교TV의 “광우스님의 가피” 토크쇼에서 불교심리상담과 만다라 명상에 대한 대담자로 출연하였다.



○ 하수경(1차 108인)

하수경·김광해 2인전이 불교여성개발원 3층 전시실에서 지난 6월 11일 오프닝 리셉션을 시작으로 6월 26일(목)까지 열렸다. 총 출품작은 회화·사진 등 40여 점.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조형 언어를 구사하는 두 작가가 한 공간에서 만나 ‘같고도 다른 두 개의 시선’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여성 불자 108인 외에도 여러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 형난옥(6차 108인)

도서출판 나눔 대표로 「시로 짓다, 조선-훈민정음과 문학의 정칙학 I·II」를 출판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580주년에 ‘다시 읽는 조선의 선택’을 키워드로 하여, 훈민정음과 시문학, 불교를 하나의 사유체계로 엮은 박해진 저자의 책이다.



○ 흥원숙(8차 108인)

5월 22일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로서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중의사 5명을 조명하는 특집시리즈인 장쑤성TV 다큐멘터리 <동방지혜: 중의약 이야기> 프로그램 촬영 차 고향 남해를 방문하여 소개하고, 국내의 남해신문 등과도 인터뷰 하였다.



○ 황치석(10차 108인)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언노운바이브 아트페어《더 블룸 2026》-UNKNOWN VIBES Art Fair 《The BLOOM 2026》에 출품하였다. 신라호텔 11층과 12층 전체 객실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3월 20일 정대련 원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6.03.01~2026.05.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값이 감사드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	김지영(5차) 1,000,000	이윤희(10차) 1,000,000	권영순(11차) 30,000	정은경(12차) 30,000	김연희 30,000
	김진여심(5차) 1,000,000	이은미(12차) 1,000,000	김득이(12차) 30,000	정은희(6차) 30,000	김영희 30,000
고은자 1,200,000	김현지(7차) 1,000,000	이인옥(3차) 1,000,000	권애지(12차) 20,000	정지원(7차) 30,000	김정희 30,000
박현주 1,200,000	김형인(9차) 1,000,000	이인자(2차) 1,000,000	김서정(12차) 30,000	정해정(9차) 30,000	김학엽 15,000
안애원 1,200,000	남상민(1차) 1,000,000	이재심(8차) 1,000,000	김수향(11차) 30,000	조경숙(6차) 60,000	김현숙 30,000
양정희 1,200,000	남해경(11차) 1,000,000	이주연(6차) 1,000,000	김순자(11차) 30,000	조귀자(9차) 30,000	나경윤 15,000
양현정 300,000	류인숙(5차) 1,000,000	이주현(4차) 1,000,000	김양희(6차) 30,000	조민기(11차) 30,000	노지숙 30,000
원유자 1,000,000	리영자(1차) 1,000,000	이천희(10차) 1,000,000	김영미(6차) 30,000	조정숙(6차) 30,000	도인희 30,000
윤정로 3,000,000	문명하(5차) 1,000,000	이태영(9차) 1,000,000	김옥주(7차) 30,000	조현숙(10차) 30,000	민선정 30,000
이순재 3,000,000	민혜성(12차) 1,000,000	이현아(10차) 1,000,000	김유경(12차) 30,000	주찬옥(6차) 30,000	박말희 15,000
이영주 1,204,000	박강자(6차) 1,000,000	이현주(10차) 1,000,000	김윤숙(11차) 30,000	채진영(11차) 30,000	박문숙 30,000
이윤희 600,000	박경자(5차) 1,000,000	이혜원(11차) 1,000,000	김정기(12차) 30,000	최복란(8차) 30,000	박영재 30,000
이해남 3,000,000	박기옥(10차) 1,000,000	이화선(11차) 1,000,000	김주원(12차) 30,000	최은경(12차) 20,000	박지선 30,000
	박근연(1차) 1,000,000	임현우(7차) 1,000,000	김청옥(7차) 20,000	최은희(9차_제주) 30,000	박홍우 30,000
	박명혜(2차) 1,000,000	장미숙(9차) 1,000,000	김혜경(12차) 30,000	최희영(7차) 30,000	서혜정 30,000
(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	박정애(8차) 1,000,000	전나미(7차) 1,000,000	김해자(12차) 30,000	한주영(10차) 30,000	한문수님 30,000
	박종균(6차) 1,000,000	정영수(4차) 1,000,000	김보숙(12차) 30,000	한재희(9차) 30,000	송만숙 60,000
김선숙 1,200,000	박찬재(9차) 1,000,000	전영자(3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한혜원(7차) 40,000	안미경 30,000
서혜선 300,000	백경임(1차) 1,000,000	정명자(8차) 1,000,000	남동희(3차) 30,000	한화연(12차) 30,000	안석자 30,000
손은정 1,200,000	백미현(10차) 1,000,000	정미령(8차) 1,000,000	노희순(3차) 10,000	함양자(11차) 30,000	연명순 30,000
안기순 300,000	사기순(4차) 1,000,000	정인향(11차)-1차분 500,000	문보경(6차) 30,000	황남채(1차) 30,000	왕민영 30,000
이명순 300,000	서경애(12차) 1,000,000	정진원(7차) 1,000,000	박경현(11차) 30,000	황명자(6차) 30,000	원유자 30,000
이영미 1,200,000	서현숙(7차) 1,000,000	조명숙(8차) 1,000,000	박귀현(8차) 30,000	황선화(5차) 30,000	유명숙 30,000
최혜경 300,000	서혜경(1차) 1,000,000	조영우(7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황수남(9차) 30,000	윤용옥 15,000
황경자 1,200,000	성민선(3차) 1,000,000	조은경(10차) 1,000,000	박혜옥(11차) 30,000	황치석(10차) 30,000	이강희 15,000
	성수현(12차) 1,000,000	조은수(2차) 1,000,000	배순자(6차) 30,000		이고은 30,000
	성영란(10차) 1,000,000	조재란(10차) 1,000,000	변경이(8차) 40,000		이미선 90,000
여성불자08인회 평생회비	손미영(7차) 1,000,000	조정현(8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여성불자08인 회비 (온라인)	이숙자 30,000
	손미원(9차) 1,000,000	조희금(2차) 1,000,000	손유림(11차) 30,000	강인자(11차) 240,000	이승자 30,000
강미중(5차) 1,000,000	손인희(9차) 1,000,000	조희분(9차) 1,000,000	손인애(9차) 40,000	고경호(10차) 100,000	이영재 30,000
강설미(7차) 1,000,000	송현주(4차) 1,000,000	최경분(9차) 1,000,000	송주희(9차) 30,000	권승오(9차) 30,000	이윤구 30,000
강영실(12차) 1,000,000	신용현(9차) 1,000,000	최나영(10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김경화(12차) 50,000	이윤희 30,000
고은자(10차) 1,000,000	안수연(11차) 1,000,000	최봉영(12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김만옥(8차) 100,000	이재영 30,000
구명숙(12차) 1,000,000	안영(10차) 1,000,000	최수영(11차) 1,000,000	안인자(9차) 30,000	김미연(10차) 100,000	이정애 30,000
권지혜(7차) 1,000,000	안애원(7차) 1,000,000	최영옥(9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김해령(9차) 100,000	이정호 30,000
김경량(10차) 1,000,000	양숙자(5차) 1,000,000	최윤정(3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김혜원(12차) 20,000	이진수(무관수님) 30,000
김귀순(7차) 1,000,000	양애자(4차) 1,000,000	최혜숙(4차) 1,000,000	위영금(12차) 30,000	안선숙(12차) 120,000	이화선 30,000
김미연(10차) 1,000,000	양정희(9차) 1,000,000	추미실(3차) 1,000,000	유희희(12차) 30,000	양현숙(12차) 30,000	신은영(자우수님) 30,000
김미원(9차) 1,000,000	양채화(7차) 1,000,000	취환(11차) 1,000,000	유현숙(12차) 40,000	양현애(12차) 70,000	장윤실 30,000
김복순(2차) 1,000,000	여순아(9차) 1,000,000	하봉자(10차) 1,000,000	유희영(11차) 30,000	유수지(12차) 60,000	전미옥 60,000
김선옥(6차) 1,000,000	엄희원(10차) 1,000,000	한화연(12차) 1,000,000	육종연(12차) 20,000	윤혜경(10차) 100,000	정명모 30,000
김숙자(3차) 1,000,000	오세란(12차) 1,000,000	홍소진(10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이영호(3차) 120,000	정숙인 90,000
김순남(10차) 1,000,000	오응옥(3차) 1,000,000	홍원숙(8차) 1,000,000	윤효영(8차) 30,000	이지운(12차) 12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김승묵(3차) 1,000,000	우인순(8차) 1,000,000	홍정애(3차) 1,000,000	이미경(12차) 30,000	정진욱(12차) 50,000	정주현 30,000
김양식(1차) 1,000,000	윤정로(9차) 1,000,000		이승빈(12차) 30,000	정현주(11차) 100,000	조귀자 30,000
김영순(3차) 1,000,000	이경자(5차) 1,000,000	여성불자08인회 회비 (CMS)	이영희(8차) 20,000	최수영(11차) 120,000	조여경 20,000
김옥희(5차) 1,000,000	이계경(4차) 1,000,000	강명희(6차) 60,000	이예숙(11차) 30,000	최연지(12차) 120,000	조우상 30,000
김외숙(2차) 1,000,000	이기향(1차) 1,000,000	강손주(11차) 30,000	이은영(12차) 30,000	홍경희(2차) 30,000	조정숙 60,000
김유란(11차) 1,000,000	이두영(10차) 1,000,000	강옥란(7차) 30,000	이종영(조명숙) 30,000		진승연 30,000
김용숙(7차) 1,000,000	이명숙(7차) 1,000,000	강옥희(7차) 30,000	이진행(11차) 30,000	회원회비 (CMS)	진여수님 90,000
김윤옥(7차) 1,000,000	이순이(3차) 1,000,000	강희경(10차) 30,000	이혜숙(9차) 30,000	강희출 15,000	차원준 30,000
김은희(4차) 1,000,000	이사구(11차) 1,000,000	계미향(8차) 20,000	임정애(6차) 30,000	권은람 30,000	최순진 30,000
김일명(7차) 1,000,000	이연숙(1차) 1,000,000	공은숙(12차) 30,000	전영숙(8차) 30,000	김어석 20,000	하양자 30,000
김영숙(12차) 1,000,000	이영숙(12차) 1,000,000	구유림(11차) 30,000	정계순(12차) 30,000		한승우 50,000
김주현(8차) 1,000,000	이영주(7차) 320,000		정승아(12차) 30,000		허영숙 30,000
김지선(12차) 1,000,000	이원표(8차) 1,000,000		정윤경(12차) 30,000		형난옥 30,00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6.03.01~2026.05.31)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숙기(진여스님) 30,000	변영숙(김여주자)	교정교회센터	윤정은 30,000	양현정 50,000	양경윤(김문환) 100,000
홍점례 15,000	1,080,000		이경미 90,000	어순아 100,000	양하영 200,000
황유진 30,000	손미영(7차) 12,000	가족지원센터-교정교회	장혜연 80,000	원유자 100,000	양현정 100,000
	손미원(9차) 80,000	200,000	정혜자 30,000	원지은-서경애 200,000	유유희 16,000
	신병옥(신재정미소)	권승오 30,000	최다혜 30,000	원지한-서경애 200,000	유현숙 3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CMS)	275,000	김인숙(브룩치판매)	한경숙 90,000	이명순 100,000	윤정로 30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120,000		이순이 300,000	이기향 300,000
강인영 40,000	80,000	남동현 90,000		이순재 100,000	이문자 300,000
이기향 90,000	유옥준(정진희 권선)	서혜선 300,000	금강정 회향보시금 (지혜정학회)	이영주 200,000	이순재 가방 등 602,000
이두영 60,000	60,000	손연옥 30,000		이은미 100,000	이영미 세미성 1,000,000
최비안 120,000	이시구 1,080,000	이시구 60,000	김선옥 100,000	이정호 50,000	이영주컬렉션 213,000
	이기향(1차) 570,000	이영희 90,000	김연수 100,000	이현자 100,000	이영희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이영주(7차) 4,680,000	전영숙 20,000	김재란 100,000	장형순 100,000	이은미 100,000
	이영희(8차) 580,000	정대련 300,000	김지영 100,000	정경연 200,000	이정수 1,000,000
	이인자교문 1,600,000	조은수 100,000	남동현 100,000	정대련 500,000	이정숙 100,000
김여주(10차) 1,08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한주영 30,000	박기욱 100,000	정유진 100,000	이정호 액세서리 100,000
김옥경(7차) 1,080,000	600,000	홍경희 30,000	박원자 100,000	정진옥 100,000	이시혜 100,000
김점란(6차) 300,000	최윤옥(7차, 최혜경권선)	홍소진 20,000	박혜옥 100,000	조은경 200,000	임소덕 100,000
남동현 270,000	570,000		성영란 100,000	한숙희 200,000	전영숙 건 농수산물
보우법사 30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송은주 100,000	한화연 100,000	318,000
서경애 300,000	1,080,000	가족지원센터 회비 및 후원	안기순 100,000	황은복 200,000	정영수 1,000,000
신병옥(최혜경권선)	형난옥(6차) 7,080,000	고국진 30,000	양정희 100,000		정진희 조화 연꽃
	725,000	고부진 60,000	원유자 100,000		200,000
유현숙 230,000	홍소진(10차) 660,000	고은자 40,000	어순아 100,000	제18회 바자 후원금	정형은 100,000
이병두(전영숙권선)		고재은 150,000	이윤희 100,000		조정숙 100,000
50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김미은 30,000	이정호 100,000	강영실 100,000	최광숙 100,000
이윤희 200,000	(다문화봉사단/우바이예찬/	노경자 60,000	정대련 100,000	강영자 기증옷,악세서리	최혜경 200,000
이해남 1,080,000	재소자영치금/기타)	임순덕 30,000	황은복 100,000	570,000	피상순 200,000
임지영 90,000	고은자 300,000	조재란 30,000	(㈜히어코리아 4,000,000	권승오 50,000	황경자 200,000
정영수 10,00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김경림 나전칠기 공작함	황덕순 100,000
조태일(이순재권선)	6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부처님 오신날 연등 모연	1,000,000	*이순이 딱 1말 후원
1,080,000	김수천 80,000	김여주 100,000	고경효 100,000	김수천 100,000	
천양자(무량심)	김외숙 300,000	김옥경 190,000	고은자 50,000	김옥주 강원지원장	
30,000,000	김형인 100,000	신현옥 190,000	권미선 50,000		
최윤옥(7차) 90,000	남동현 200,000	안형선 90,000	권애자 100,000	김외숙 200,000	96호 광장건립 후원
한정화(9차) 200,000	백경일 180,000	정대련 100,000	김선숙 200,000	김용숙 복식품 200,000	누락 명단
홍소진(10차) 90,000	손현태(바른손치과의원)	황경자 100,000	김옥경 100,000	김인숙 주름옷 645,000	이란 10,000,000
Davidson college 학생일동	1,000,000	황은복 90,000	김용란 100,000	김정희 50,000	양정희 3,240,000
300,000	우리문화지킴이		김외숙 200,000	김주현 50,000	혜담스님 3,000,000
보궁삼사순례팀 134,410	3,000,000		김정숙 500,000	김진 손수건 273,000	정주현 1,000,000
	유여진 180,000	고등동복지단 후원	김지영 50,000	김현지 100,000	홍순화 1,080,000
불교여성광장건립(불교르	이기향 200,000	권혜영 50,000	김혜령 50,000	김형인 200,000	효성스님 1,080,000
네상스의 꿈 2) 약정 잔액	이순이 90,000	김지현 20,000	노지숙 100,000	노인자(이대훈) 100,000	장영숙 200,000
	이영미 100,000	김혜미 90,000	문보경 50,000	박종덕 100,000	
간손주(원유자 권선)	이영주 1,000,000	김희정 1,700,000	박종명 100,000	박종명 100,000	
1,080,000	이윤희 100,000	박영숙 600,000	박현주 100,000	서경애 100,000	
구윤임(11차) 990,000	이정호 35,000	방효정 90,000	성수현 100,000	성수현 100,000	
권수형(4차) 360,000	이희숙 200,000	오혜진 30,000	손현태-조재란 200,000	세븐에잇나인(박연)	
김연수 80,000	전영숙 100,000	유연서 30,000	송재영 100,000	993,000	
김용숙(7차) 1,080,000	정대련 561,400	유영미 5,000	안기순 100,000	손은정 100,000	
김인숙교문 55,315,750	정진희 100,000		안소현 100,000	손은주 100,000	
김종숙 110,000	조정숙 20,600		양채화 100,000	신경숙 100,000	
남동현 270,000	홍경희 50,000		양정희 100,000	안기순 100,000	
박순(1차) 9,000,000	황수경 120,000				
배영숙(10차) 1,080,0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7월			8월			9월		
1~29	매주 수	(10시) 가족지원센터 함께키움 조부모 돌봄 교육	7	금	(10:00)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수련회	1~5	화~일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베트남 고국방문
1~29	매주 수	(14시) 행안부 공익사업 메모리 투 메시지 강의	23	일	(14시) 고봉중고 불교반 법회	3	목	(11시) 108인회 임원회의
3	금	(11시) 11차 108인회 차수 소모임	28	금	(14시) 새활용 작품 심사	7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상담법 1강
11	토	(09시) 108인차수 임원회의 워크숍(봉인사)	31	월	(11시) 새활용 작품전시 오프닝 (14시) 지혜아카데미 특강 (강사 조동일 교수)	10	목	(14시) 개발원 운영회의
12	일	(10:30) 다문화행복가족 정기법회	31~9/4	월~금	새활용 작품 전시	13	일	(10:30) 다문화행복가족 정기법회
16	목	(14시) 지혜아카데미 5강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의 길 _김애주 고문)				17	목	(14시) 지혜아카데미 7강 (자하문로 골목길 예술 기행 _강미선 12차)
18	토	(12시) 개발원 · (사)지혜로운여성 확대 임시이사회				20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3강
26	일	(14시) 고봉중고 불교반 법회				27	일	(14시) 고봉중고 불교반 법회
						28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4강

10월			11월			12월		
8	목	(14시) 임시 이사회	2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8강	3	목	(11시) 108인회 임원회의 (송년회)
11	일	(10:30) 다문화행복가족 정기법회	5	목	(11시) 108인회 임원회의	10	목	(14시) 개발원 임시 이사회의 (송년회)
12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5강	8	일	(10:30) 다문화행복가족 정기법회	13	일	(10:30) 다문화행복가족 정기법회
17	토	(16시) 행안부 공익사업 메모리 투 메시지, 연극공연	9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9강	17	목	(14시) 지혜아카데미 10강 (선무_양정희 9차, 이현숙 11차)
19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6강	12	목	(14시) 개발원 운영회의	27	일	(14시) 고봉중고 불교반 법회
22	목	(14시) 지혜아카데미 8강 (이미 다문화 가족과 불자의 역할 _김연화 6차)	16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10강			
24	토	(6시) 108인회 추가 사찰순례	22	일	(14시) 고봉중고 불교반 법회			
26	월	(14시) 명상리더십 부처님 상담법 7강	26	목	(14시) 지혜아카데미 9강 (음악은 7색깔 무지개 _김양희 6차)			
			27	금	(14:30) 창립 26주년 기념식 및 원장 이취임식 *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